

협동조합과 사회주의*

이 상 봉**

•요 약•

협동조합사상이나 운동은 사회주의사상의 조류 속에서 출현하였지만 그동안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도하던 사회주의운동의 한 흐름으로 인정받지는 못해 왔다.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주의로의 이행방법에서의 차이 등으로 협동조합운동은 사회주의운동과 거리를 두면서 정치적 중립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편으로 소련 및 동유럽 국가사회주의의 붕괴와 함께 사회주의의 본원적 형태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주의적 성격을 강화한 새로운 협동조합이 분출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협동조합과 사회주의의 관계에 대한 관심과 분석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이 글은 협동조합과 사회주의의 관계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즉 협동조합은 사회주의사상의 하나의 흐름인가? 초기사회주의자들은 협동조합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협동조합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은 각각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며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가? 협동조합과 사회주의의 이론 및 실천에 있어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대안적 사회주의로서 제기되는 어소시에이션론과 협동조합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협동조합, 사회주의, 어소시에이션, 대안적 사회주의, 사회적 협동조합

I. 시작하면서

1990년대 이후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가치 및 목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발생론적으로 협동조합사상이나 운동은 사회주의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통일한국연구원 부교수

사상의 조류 속에서 출현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협동조합의 등장이 그리 낮설지 않지만, 그동안 협동조합운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도하던 좌파 사회변혁운동의 한 흐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최근의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주의운동으로서의 협동조합의 복귀로 볼 수도 있다.

알다시피, 협동조합운동은 그 초기에는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당시 사회주의운동을 주도하던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인식 및 지향의 차이가 커지면서 점차 사회주의운동과 괴리되게 되었다. 특히,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운동의 계보를 잇는 러시아의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에 의해 실존하는 사회체제로서의 ‘소련형 사회주의’가 성립되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실증적’이해가 득세하였고,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사회주의적 성격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적’이해, 즉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상이나 제도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면, 협동조합도 사회주의의 흐름 가운데 하나로 위치시킬 수 있다. 협동조합에는 사적소유, 사적이윤추구, 자유경쟁 등의 자본주의 원리에 대항하는 공동소유, 공익(共益)추구, 협동 등의 사회주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존하던 ‘소련형 사회주의’가 소련방의 붕괴와 함께 실패로 끝난 이후, 한편으로 사회주의의 분원적 형태에 대한 재고와 다원적 인식이 요구되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이 분출하는 등 사회주의와 협동조합의 양 측면에서 공히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동조합과 사회주의의 관계나 협동조합의 사회주의적 성격에 대한 관심과 분석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협동조합이 초기사회주의사상이 낳은 산물임에도 이를 사회주의사상의 계보 속에서 파악하거나 협동조합과 사회주의의 관계를 분석하려는 시도는 그동안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¹⁾ 이는 협동조합운동이 인식과 노선을 달리하던 마르크스주의와 거리를 두고, 현실 사회주의세력 및 정당의 개입에 따른 이념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치·이념적 중립을 원칙으로 삼는 등 비정치성을 지향한 영향이 컸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조합원만의 공익(共益)이 아니라, 공익(公益)이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이 늘어나면서, 사회

1) 국내의 연구로는, 혁명 전후 러시아에서의 협동조합의 존재방식을 고찰한 김창진(2008)의 저서와 협동조합의 사회주의적 성격 회복을 논구한 정상은(2014)의 글이 있다. 국외에서는 일본에서 비슷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협동조합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飯島源次郎(1974)의 연구와 사회주의운동이 협동조합운동을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분석한 穴見博(1996)의 연구 그리고 일본 생협이 가진 사회주의적 성격을 분석한 松原昭·影山摩子弥(2016)의 연구 등이 있으며, 마르크스의 이론을 어소시에이션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연구로는 田畑稔(2003), 小松善雄(2012), 安田均(2022)의 연구 등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 가운데 본 논문과 같이 역사적·종합적 관점에서, 특히 대안으로서의 어소시에이션과 관련시켜 협동조합과 사회주의의 관계를 분석한 글은 드물다.

변혁운동의 측면에서의 협동조합의 의의에 대한 관심도 제고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 협동조합운동의 현장에서, 소비협동조합과 같은 ‘기업(enterprise)’의 측면에 치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의 측면을 강조하는 협동조합 사이의 분절이나, 보수이념에 토대를 둔 협동조합과 진보이념에 기반 한 협동조합 사이의 비협력적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협동조합과 사회주의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충분한 시의성을 가진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이하에서는 ‘협동조합과 사회주의’의 관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즉 협동조합은 사회주의사상의 계보를 잇는 하나의 흐름인가? 협동조합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은 각각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며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가? 협동조합과 사회주의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대안적 사회주의로서의 어소시에이션론과 협동조합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의 문제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사회주의사상의 흐름과 협동조합

1. 초기사회주의사상과 협동조합

사회주의(socialism)란 근대의 중심적 원리이자 질서인 개인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등이 낳은 폐해를 ‘사회(social)’ 중심의 새로운 구상이나 제도로 해결코자 하는 ‘사상’ 및 ‘운동’을 가리키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즉, 근대 자본주의의 진전과 함께 소수의 자본가에게 권력과 부가 집중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며, 사적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 치열한 경쟁과 착취에 의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노동자의 삶이 피폐해지는 현상을 목도하면서, 이를 ‘자본의 원리(:자본주의)’에 대치되는 새로운 사회질서의 수립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로서 출현한 것이다.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르루(Pierre Leroux)가 1834년 <개인주의와 사회주의에 관하여>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사회주의의 개념을 분석하면서 사용한 바 있으며,²⁾ 비슷한 시기 오언(Robert Owen, 1771~1858)이나 생시몽(Saint-Simon)과 그의 추종자들이 자신들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는 설도 있다. 이처럼,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대체로 1830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근대혁명의 파도 속에서 등장하여, 다양한 주장과 맥락으로 널리 사용되다가, 이후 사회사상으로서 몇 가지 조류

2) David A. Griffiths, “Pierre Leroux Redivivus”. *Nineteenth-Century French Studies*.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2 (1-2), 1983, p.105.

를 형성해가게 된다. 즉, 광의로는 사회를 조직화하는 제도의 의미로서, ‘초기(:유토피아) 사회주의’, ‘사회개량주의’, ‘사회민주주의’, ‘무정부주의’, ‘생디칼리즘’, ‘국가사회주의’ 등이 포함되며, 협의로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공유’ 및 ‘관리’를 지향하는 ‘과학적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주로 나타낸다. 전자를 자유주의 및 자본주의에 대한 대항으로서의, 이른바 ‘개념적’ 이해라고 한다면, 후자는 실존한 사회주의를 인식대상으로 삼아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른바 ‘실증적’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의 사회주의사상은 단일의 사상가나 이론에 의해 주도되는 하나의 정형화된 형태가 아니었다. 즉,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지향에 따라 다양한 분파가 존재하며, 때로는 분파들 간에 적대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들 사회주의의 다양한 분파 가운데, 후일의 과학적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유토피아 사회주의’라는 명칭을 얻게 된 초기사회주의 사상이 사회주의의 원류라 할 수 있으며, 대표적 사상가로는 생시몽, 푸리에(Charles Fourier, 1772~1837), 오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오언이 협동조합의 창시자로 불리는데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초기사회주의 사상가의 이론 속에는 협동조합의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초기사회주의자들이 활동하던 18세기 말의 시기는 자본주의의 진행이 가장 앞서던 영국에서는 산업자본주의가 확립되던 단계였으며, 프랑스는 아직 산업자본주의에 접어들기 이전으로 1789년 프랑스대혁명의 여파가 이어지는 정치적 혁명의 와중에 있었다. 즉,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 발발할 당시 생시몽은 29세, 푸리에에는 17세였다. 이들 가운데 ‘기독교사회주의’의 원류로 평가되는 생시몽은 대혁명기의 고양된 민주주의 사상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의 계몽사상을 참고로 하여, 혁명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무질서를 회복할 방안 찾기에 골몰했다. 즉, 생시몽은 당시의 사회상황을 그가 말하는 ‘부르주아’에 해당하는 귀족, 군인, 법률가, 금리생활자 등과 ‘산업자’인 농업인, 제조업자, 상업인 등이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하고, 가장 수가 많으면서 가장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산업자’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질서의 수립을 제창했다.³⁾

생시몽의 사상에서 사회주의의 맹아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모든 인간은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제와 ‘가장 수가 많으면서 가장 가난한 계급의 운명을 개선하는 것이 사회질서 개편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명제를 내세우며, 인간평등을 기초로 삼아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고자 했기 때문이다.⁴⁾ 또한 아직 산업자본주의에 접어들기

3) 高橋五郎·磯辺俊彦, “サン・シモン・フーリエの思想にみる生産協同組合論”, 『千葉大園学報』第43號, 1990, p.95.

4) 高橋五郎·磯辺俊彦(1990), p.93.

이전의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인 공장생산이 노동(자)의 소외를 초래하는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생산에 종사하는 ‘산업자’들의 완전한 평등에 기반한 ‘공동활동’과 그들에 의한 ‘공공재산의 위탁관리’를 주장한 점에서도 그의 사회주의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⁵⁾ 특히 산업자에 의한 공공재산의 위탁관리는 당시 피지배계급이던 산업자가 경제적 지배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획기적인 사회개혁의 사고였다.

당시에는 협동조합이라는 용어가 별로 사용되지 않던 때라서 명시적인 용어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생시몽의 사회주의사상에는 ‘모든 인간의 평등을 기초로 삼아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개선하는’ 협동조합과 유사한 원리가 내포되어 있다. 즉, 일반적으로 생시몽의 사상에서 사회주의의 맹아를 찾는 것과 같은 논리로 협동조합의 맹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생시몽보다 12년 늦게 출생한 푸리에는 당시 프랑스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에 생시몽보다 더 민감했으며, 특히 ‘상업’과 ‘문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였다. 즉, 어린 시절 상점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그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착취와 투기를 일삼는 상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해결이 없으면 귀족과 승려에게서 토지를 몰수하면서 얻은 혁명의 경제적 성과도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았다. 상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찾은 방법은 사회화된 교환제도의 도입, 즉 상업의 ‘공영화’였다. 생활필수물자의 교환과 분배를 사적 매매가 아닌 ‘코뮌’이라는 공동대리인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투기와 착취로 점철된 상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그를 사회주의 사상가로 위치지우는 근거가 되었다.

그의 구상은 상업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생산의 영역에까지 확대되었다. 그 계기가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는 물질적 배분의 평등성을 기초로 한 동업적·연대적인 공동체인 팔랑주(phalange)의 건설을 주장했다.⁶⁾ 일종의 생산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는 팔랑주는 농·공업사회에 기반을 둔 소규모공동체로, 토지나 공장 등이 공동체의 공유에 속한다고 보고 공동으로 토지를 경작하거나 공장에서 일하며 생활했다. 내부적으로 각 구성원은 특정한 일에 고정되거나 소외되는 경우가 없이 역할을 바뀌가며 협동하여 일했으며, 각 개인은 팔랑주 전체의 생산에 공헌한 바를 엄밀히 계상하여 그에 따라 보상을 받았다. 팔랑주에서의 노동은 불유쾌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강제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푸리에는, 팔랑주가 자본주의보다 더욱 공정한 부의 분배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군주제를 비롯한 어떤 정치체제 하에도 도입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5) 위의 글, p.96.

6) 위의 글, p.97.

이처럼 푸리에에는 팔랑주라는 독특한 소규모 노동공동체를 구상하고 실천함으로써 후대의 생산협동조합론에 적잖은 공적을 남겼다. 즉, 생산협동조합을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나 관리 및 공동노동에 기반한 협동적 생산조직으로 정의한다면, 그 맹아를 푸리에의 사상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사상이, 비록 유토피아적이기는 하지만, 사회주의 및 협동조합 이론에 기여한 바는, 인간이 경쟁이 아니라 협동하며 일하는 사회질서를 구상했다는 점과 동업적·연대적인 개인의 관계를 생산부문에까지 확대하여 ‘협업’에 의한 ‘생산의 효율화’를 도모했다는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⁷⁾

초기사회주의자 가운데 영국 출신인 오언은 흔히 협동조합의 창시자로 불린다. 그의 사회주의사상은 협동조합에 기반한 사회주의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오언이 활동할 당시의 영국은 프랑스와 달리 산업자본주의가 확립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자본(:자본가)과 노동(:노동자)의 대립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약육강식의 경쟁에서 뒤쳐진 노동자들의 삶이 극도로 피폐해지는 상황을 목도할 수 있었다. 오언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를 변혁시킬 방안으로 노동자들의 자율공동체인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을 제시했다. 즉, 오언은 1821년에 발표된 <래너크주에의 보고서>에서, 단순한 실업자 구제의 방편이 아닌 대안적 사회질서의 하나로서, 협동노동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장조직(:제도)을 제시하고, 이를 ‘어소시에이션’이라 불렀다.⁸⁾

오언을 협동조합의 창시자로 부르는 것은 그의 추종자들, 이른바 오언주의자들이 설립한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조합>이라는 소비협동조합의 성공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당초 그가 사회변혁의 수단으로 삼고자 한 것은 일종의 생산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는 공장조직이었다.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장조직에서의 노동은 사회적 성격, 즉 공통의 목적을 위해 타인의 노동과 자신의 노동이 호혜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띠기에, 생산수단의 낭비를 없애고 최소의 지출로 일정한 결과를 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효율적인 어소시에이션(:협동조합)이 하나 형성되면, 또 만들려는 욕구가 각지에서 분출하여 협동조합은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초기사회주의자의 사상에는 사회주의의 원류만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맹아도 발견된다. 모든 인간들의 평등한 연대를 기초로 하여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개선한다는 협동조합의 기본원리는 사회주의와 상통하기 때문이다. 특히, 초기사회주의사상은 당시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열악한 상태에 있던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경쟁’

7) 위의 글, p.97.

8) Robert Owen, *Report to the Country of Lanark: A New View of Society and Other Writings*, Everyman's Library, 1949, p.264.

이 아닌 ‘협동(:연대)’의 방식과 ‘개인’이 아닌 ‘어소시에이션(:공동체)’에서 그 대안을 찾았다. 이러한 점에서 초기사회주의사상은 ‘어소시에이션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으며, 협동조합은 그러한 어소시에이션의 가장 유력한 하나의 형태라는 점에서, 초기사회주의와 협동조합은 그 논리적 맥락이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자유주의계보 사회주의론과 협동조합

초기사회주의 사상가들이 사용한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용어는 자발적·자율적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루소(Jean Jacques Rousseau)의 <사회계약론>에서 이미 등장한 바 있다. 즉, 루소는 사회계약에 의해 탄생하는 국가라는 정치공동체를, 제(諸)개인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맺은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어소시에이션’으로 표현하였다.⁹⁾ 그에 의하면, 모든 주체로서의 개인이 일반의사에 기반한 사회계약을 통해 ‘어소시에이션’을 결성함으로써 각 개인이 전체와 결부됨과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며, 이전과 같은 자유를 누리며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루소 <사회계약론>의 핵심은 제 개인의 자유와 복지 실현이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정치공동체의 구성에 있지만, 그러한 정치공동체의 성격이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점, 즉 제 개인의 일반의사에 기반한 자율적 합의를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라는 점은 사회주의나 협동조합의 관점에서도 주목해 둘 필요가 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사회주의사상은 좌파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즉, 자유주의자인 밀(J. S. Mill, 1806~1873)도 당시의 영국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회주의적 사고는 폭넓게 존재했다.¹⁰⁾ 오언 등 초기사회주의자들보다 30~40년 정도 늦게 태어난 밀은 산업혁명 이후 궁핍해진 노동자들의 삶을 목도하면서 이의 해결책으로 나름의 사회주의를 구상했다. 당시 영국에서는 빈곤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구빈법>에 근거한 자선사업이 대대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밀은 주체와 객체가 명확히 구분되는 자선활동을 통한 구제는 구제대상자들의 자립을 돕기보다는 그들을 구제에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어 더욱 빈곤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자선활동을 통한 구제를 대신해, 노동자들을 빈곤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 되는 ‘사적소유제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다만 그는, 사적소유의 철폐를 주장한 마르크스주의자들과는 달리, 사적소유에 기반

9) Jean-Jacques Rousseau, *The Social Contract and Discourses*. Translated with an Introduction by G.D. H. Cole, London and Toronto: J.M. Dent and Sons, 1923, p.14.

10) 安井俊一, “J. S. 밀의社會主義論とマルクス”, 慶應義塾經濟學會, 『三田學會雜誌』 112-1, 2019, p.6.

한 사적이익의 추구가 사회진보에 공헌하는 측면을 인정하여 이를 온존시키면서 그 폐해만을 수정하려는 입장이었다. 밀이 사적소유제도의 수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안한 것은 ‘협동조합에 의한 자본의 조달 및 경제활동의 촉진’과 ‘협동조합에 의한 재산의 소유’였다. 여기서 ‘협동조합에 의한 재산의 소유’란 조합원 전체에 의한 재산의 처분은 가능하지만 개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처분은 금지되는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완전한 공적소유는 아니지만 공적소유에 근접한 것이었다.¹¹⁾

이처럼, 밀이 생각하는 사회주의란 사적소유와 치열한 경쟁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협동조합적인 소유 및 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가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노-사간 대립의 완화를 통해 노동자계급이 ‘종속 보호의 지위’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지위’를 가지도록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밀은 2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그 하나는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조적으로 바꾸어 노-사가 함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노-사협조형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사간의 고용관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여 노동자 자신이 협동소유제의 자본을 토대로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하는 것이었다.¹²⁾ 이처럼 밀의 사회주의론은 협동조합론으로 간주해도 될 정도로 협동조합의 색채를 짙게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밀은 당시 성과를 내던 <로치데일 공정선거자 조합>의 성공요인으로 2가지 점을 지적한다. 그 하나는 협동의 방식이 부의 낭비를 줄여 전체 생산성의 향상을 이끈 점이며, 다른 하나는 조합원 모두가 조합의 목적 실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점으로, 이는 협동조합을 만드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밀이 협동조합운동에 기대한 것은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근대사회의 시민으로서 자립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기에, 협동조합의 성공이 조합원의 처우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노동자들의 인간성 개조, 즉 ‘사회의 도덕적 혁명’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여기서 ‘사회의 도덕적 혁명’이란, “노-사간의 불화의 해소이며, 서로 대립하는 계급투쟁에서 만인의 공동된 이익추구를 위한 우의에 찬 경쟁으로 인간생활을 바꾸는 것이고, 노동의 존엄성의 고양이며, 노동계급에게 있어 새로운 안정감이자 독립성이며, 모든 인간의 나날의 삶의 사회적 공감 및 실제적 지성의 학교로의 형태 변경인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¹³⁾

밀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모리스(John Frederick Maurice, 1805~1872)나 닐(Edward Vansittart Neale, 1810~1892) 등 영국의 기독교사회주의자들의 사상에서도 협동조합의

11) 小槻直史, “J. S. 밀의協同組合觀に関する一考察”, 『生駒經濟論叢』 8-3, 2011, p.16.

12) 위의 글, p.23.

13) J. S. 밀著·末永茂喜驛, 『經濟學原理』 東京: 岩波文庫, 1961, p.174.

색채는 확인된다. 즉, 소책자 <기독교 사회주의(Christian Socialism)>를 발행하여 기독교 사회주의의 창시자로 불리는 모리스는 당시 폭넓게 제기되던 사회주의사상을 수용하여 사회주의의 기독교화와 기독교의 사회주의화를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성행하던 사람들의 사익추구와 경쟁을 사람들 세계의 무질서에 따른 결과로 보고, 이는 신의 질서인 사람들 간의 ‘동포애’(Fellowship)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⁴⁾ 널 또한 동포애를 ‘신에 의해 부여된 인간의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기회’ 즉, 신과 인간의 관계의 핵심으로 보고, 이를 사회주의로 칭함으로써 ‘신과 인간의 관계’를 ‘사람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들’로 치환한 바 있다.¹⁵⁾ 기독교와 사회주의를 연결하는 매개가 되는 것이 바로 동포애라는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사회주의자들의 사회주의 인식의 핵심은 사람들이 전체의 복지를 위해 결합하는 방식, 즉 ‘개인들 간의 관계 맺기’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사회주의 또한 초기사회주의의 특징인 ‘어소시에이션 사회주의’로서의 성격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3.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관과 협동조합

알다시피, 자본주의의 병폐 및 모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사상은 마르크스에 의해 체계화된다. 마르크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앞선 초기사회주의를 유토피아사회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이와 구분하는 의미에서 자신들을 과학적 사회주의로 칭했다. 즉, 자본주의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모순에 의해 필연적으로 공산주의로 이행할 것이며 그 과도기의 형태로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지양된 사회주의 생산양식의 단계를 거친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지양된 이후의 새로운 사회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용어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사용한 바 있는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용어는 당시 프랑스나 영국의 초기사회주의자들이 미래의 이상사회를 지칭하는 용어로도 자주 등장했고, 이들의 사상을 섭렵한 후 자신의 이론을 구축한 마르크스도 그 영향으로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¹⁶⁾ 하지만 마르크스주의 사상 내에서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용어는 일반화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마르크스의 사후 사회주의운동의 주된 흐름이, 어소시에이션과 대비되는, 국가집권적 성격을 띠었기 때문이며 둘째로, 당시에는 어소시에이션이라는

14) 中川雄一郎, 『協同組合のコモンセンス』, 日本經濟評論社, 2018, p.34.

15) 中川雄一郎, 『キリスト教社會主義と協同組合: E. V. ニルの協同居住福祉論』, 日本經濟評論社, 2002, p.36.

16) 大谷禎之介, 『マルクスのアソシエーション論』, 桜井書店, 2011, p.169.

용어가 협동조합, 결사체, 연합체, 협회, 연대, 단체 등 다양한 의미로 폭 넓게 사용되고 있어 명확한 하나의 개념으로 정착되기 힘들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¹⁷⁾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의 특질을 ‘생산관계’와 ‘유통관계’의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즉, 생산관계에서는 자본에 의한 ‘잉여가치의 착취’가 주된 문제가 되며, 유통관계에서는 ‘생산의 무정부성’이 문제가 된다. 이 가운데 마르크스가 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생산의 무정부성’이다. 즉,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의 정합관계의 조정이 ‘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무정부성을 떨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생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찾아 이러한 무정부성을 극복하는 것을 곧 자본주의의 극복으로 간주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노동의 정합관계’를 자본에 의해 노동하는 개인이 ‘수동적’으로 결합되어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이를 노동하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어소시에이트(associate)한 상태인 ‘어소시에이트한 제(諸)개인’으로 대치하는 것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어소시에이트한 노동의 생산양식’으로의 전환이며, 이를 토대로 성립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시스템으로서의 ‘어소시에이션 사회’라고 설명한다.¹⁸⁾ 여기서 ‘어소시에이트’한다는 의미는 무언가에 의해 수동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합한 결과로서 결합되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어소시에이트한 노동’은 ‘사적 노동’에 대립하며, 개인적 노동을 사회적 노동으로 바꿈으로써 ‘어소시에이션 사회’의 형성으로 이어지고, 이에 의해 ‘어소시에이트한 제개인’은 사회적 생산 전체를 스스로의 관리 하에 두고 이를 공동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사회적 노동의 생산력과 제개인의 개성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마르크스가 구상하는 신사회로서의 어소시에이션은 자본주의의 내적 발전 속에서 산출되는 사회, 즉 자각적으로 ‘어소시에이트한 제개인’이 변혁의 주체로서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가운데 산출되는 사회인 것이다.

이처럼, 마르크스가 구상하는 사회주의, 즉 ‘어소시에이션’이란 생산·노동과정에서 제개인이 주체적으로 결합하는 행위에 의해 형성되는 공동체를 의미하며, 이는 자본주의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이라는 공동체가 출현하게 되는 과정 및 논리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19세기 초·중반까지 어소시에이션은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제개인의 결사조직을 나타내거나 노동자의 자치에 기반 한 협동조직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사회주의를 비롯한 사회변혁운동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동시대인이었던 마르크스도 새로운 대안적 사회질서를 모색함에 있어 협동조합과 유사한 형태인 어소

17) 野口敏夫, “ルソーのアソシエーション論とマルクスのアソシエーション論”, 北海学園大学 大学院経済学研究科 『研究年報』 17, 2017, p.21.

18) 위의 글, p.22.

시에이션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사회주의사상과 협동조합의 접점을 확인할 수 있다.

후대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협동조합을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역효과가 아니라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함으로써 오히려 자본주의의 연명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과 달리, 마르크스의 사상이나 이론 속에서 협동조합의 색채나 협동조합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기대를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즉, 마르크스는 <공산당선언(1848)>의 결어에서 “제(諸)개인의 자유로운 전개가 만인의 자유로운 전개의 조건이 되는 하나의 어소시에이션이 출현한다.”고 적고 있으며, <자본론(1863)> 제3부에서는 ‘어소시에이트한 노동’, ‘어소시에이트한 생산’이라는 표현으로 미래사회를 특징짓고 있는 바, 여기서 ‘어소시에이트한 노동’이나 ‘어소시에이트한 생산’은 ‘협동조합적 노동’이나 ‘협동조합적 생산’으로 바꿔 말해도 무방한 의미로 서술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내전(1871)>에서는 “가능한 공산주의가 연합한 협동조합 제단체가 공동의 계획에 기반해 전국적 생산을 조정하는 시스템으로서 구상되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¹⁹⁾ 또한 마르크스는 만연에 쓴 <고다강령비판(1875)>에서 당대의 협동조합운동에 관해 “그것이 정부나 부르주아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고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만들어낸 것일 경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²⁰⁾

Ⅲ. 사회운동으로서의 협동조합과 사회주의

1. 협동조합운동의 전개와 ‘원칙’의 수립

사회운동으로서의 협동조합운동은 자본주의의 자본축적 과정에서 착취와 궁핍으로 고통 받던 경제적 약자들의 자구적 활동에서 시작되어, 한편으로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와 정세변화에 대응해 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운동 내부의 주체적 계기에 의한 변화를 겪으면서 점차 그 형태를 갖춰 나갔다. 즉, 어떤 이론이나 사상에 입각한 일률적 운동이 전개되었다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운동들이 도처에서 전개되는 가운데 주도적 흐름들이 형성되고, 그러한 실천과 경험들을 토대로 협동조합의 이론이나 원칙들이 정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흔히 오언을 협동조합의 창시자로 칭하는 것은 그의 추종자들, 이른바 오언주

19) 田畑稔 外, 『アソシエーション革命へ』, 東京: 社會評論社, 2003, p.25.

20) Marx-Engels Werke, Band 19, s.27/安田均, “マルクスのアソシエーション論とその制約”, 法政大學 『經濟志林』 89-2, 2022, p.522에서 재인용.

의자들에 의해 설립되어, 자본주의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 의미 있는 결과를 낸 <로치데일 공정선거자 조합>의 경험이 이후의 협동조합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오언을 비롯한 초기사회주의자들의 사상은 소규모공동체의 결성을 통해 사적경쟁에 기반한 자본주의에 대항하려 했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띤 것이었다. 즉, 자급자족의 원칙에 기반한 <뉴래너크 공장(1813년)>을 설립하여 운영한 바 있는 오언은, 자본주의체제의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혁명과 같은 전반적인 개혁의 방식이 아니라 소규모의 지역적·일상적인 공동체의 확산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한 자본주의의 전복을 주장한 후일의 마르크스주의자(:과학적 사회주의자)들이 그를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로 칭하며 비판한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로치데일 공정선거자 조합>은 1844년 12월, 오언주의자들을 포함한 28명의 노동자가 모여 토드레인 거리에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작은 점포를 열면서 시작되었다.²¹⁾ 이들은 불경기에 실업자가 되기도 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운동에 참가하였지만 실패한 경험 등을 통해 법·제도적인 방법을 통한 지위향상은 요원하다는 것을 통감하면서도, 폭력혁명의 방식에는 거리를 두고 있던 일반노동자들이었다. 저임금과 실업 등에 따른 생활의 곤궁 속에서 이들이 자구책으로 생각해 낸 것은 서로 협동하는 방법, 즉 각자 약간의 자본(:1파운드)을 출자하여 생필품 등의 공동구매를 위한 점포를 여는 것이었다.²²⁾

이들은 창립 당시, 우선 ‘의(衣)’와 ‘식(食)’을 해결하기 위한 점포를 설립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그 다음은 ‘주(住)’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소비물자의 생산을 통한 ‘직(職)’의 확보에까지 상호부조사업을 확장하여, 최종적으로는 ‘협동조합 커뮤니티’를 건설한다는 장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²³⁾ 비슷한 처지에 있던 궁핍한 노동자들끼리 ‘경쟁’이 아닌 ‘협동’의 방식에 의해 의, 식, 주 등 기본적인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폭력혁명에 의한 자본주의체제의 전복이 아니라,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운영되는 ‘호혜적’ 점포의 설립, 즉 ‘소비과정’의 개선을 통한 체제의 변혁을 도모하였다는 점은 이후의 협동조합운동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생산’이 아닌 협동적 ‘소비’를 통해 일상적 삶과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소비협동조합운동’의 큰 흐름이 형성되는 것이다.

<로치데일 공정선거자 조합>과 같은 소비협동조합은 유통과정에서의 중간이윤배제를 통해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약육강식의 ‘경쟁’에 기반한 시

21) 이들 중 약 1/2이 오언주의자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中川雄一郎(2018), p.9. 참조.

22) 川野重任編, 『協同組合事典』, 家の光協會, 1966, p.1042.

23) 中川雄一郎·杉本貴志, 『協同組合, 未來への選擇』, 日本經濟評論社, 2014, p.39.

장경제의 확산에 대응한 노동자들의 ‘협동’을 통한 생활 지키기였던 것이다. 1895년 창립된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ssociation: ICA, 이하 ICA)이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기업(enterprise)을 통하여, 사람들의 공통 목적을 달성하는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²⁴⁾ 협동조합의 조직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기업(enterprise)’와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의 양면성을 가진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포는 시장경제 내에서 다른 점포 및 기업들과 경쟁하는 기업들 가운데 하나이며, 최종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협동조합 커뮤니티’의 건설은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운동조직, 즉 어소시에이션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공동점포 운영을 위한 소비협동조합의 설립은 당초 최종목표인 ‘협동조합 커뮤니티’를 건설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즉, 우선 궁핍한 생활에서 살아남는 방안을 강구한 다음 점차 자금을 축적하여 협동과 평등에 기반 한 커뮤니티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조합>의 설립 당시의 규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1844년의 규약에는, 소비조합 형태의 점포운영에 관한 내용만이 아니라, ‘자금자축적 국내식민지 건설(5항)’이라는 협동조합 커뮤니티의 건설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²⁵⁾ 하지만 치열한 시장경제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점포운영에 치중한 결과 커뮤니티 건설의 과제는 뒤로 밀리게 되었다. 즉, 조합 창립 후 10여년이 지난 후인 1855년에 개정된 규약에서는 ‘사업실적의 일층 향상’이라는 점포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강조될 뿐 설립 당시에 목표로 내걸었던 ‘커뮤니티’의 건설에 관한 내용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²⁶⁾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조합>의 성공은 운 좋게 달성된 것이 아니었다. 커뮤니티의 건설이라는 최종목적을 뒤로한 채 점포의 시장경쟁력 확보에만 전력한 것도 성공의 이유 가운데 하나이겠지만, 무엇보다 ‘로치데일 원칙’으로 불리는 자율적, 평등적, 민주적인 운영방식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협동조합 점포를 살아남을 수 있게 했던 것이다. 특히 협동조합의 자율적, 평등적, 민주적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것이 ‘1인 1표의 의결권’으로, 이는 설립 당시의 규정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점포를 운영하면서 원칙으로 자리 잡아 1855년의 개정 규약 제30조에 기재되었다. 1840~50년대의 시기는 영국

24) 원문은, “A co-operative is an autonomous **association** of persons united voluntarily to meet their comm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needs 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owned and democratically-controlled **enterprise**”이다.

25) 北出俊昭, 『協同組合と社會改革』, 筑波書房, 2012, p.8,

26) G. D. H. Cole, *A Century of Co-operation*, Allen & Unwin for the Co-operative Union, 1944, p.15.

에서도 여성을 포함한 보편적 권리로서의 ‘1인 1표 의결권’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었지만, <로치데일 공정선거자 조합>은 규약을 통해 ‘1인 1표 의결권’을 선구적으로 실천한 것이다. 비록 설립 당시의 조합원 가운데 여성은 1명에 불과했지만, 이는 협동조합의 민주성과 선구성을 상징함과 동시에 당대 민주주의의 확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시장경제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기는 했지만, 생필품의 구매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협동조합은 사회변혁운동의 관점에서는 생산협동조합에 비해 그 의의가 크지 않다. 시장경제 속에서 운영되는 소비협동조합에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의한 제약, 즉 ‘자본의 논리’가 그대로 관철되고 있어서 이의 활성화가 곧 자본주의의 지양이나 사회변혁으로 이어지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협동조합운동은 약육강식의 치열한 경쟁이라는 ‘자본의 논리’가 낳은 병폐에 협동이라는 ‘노동의 논리’로 대항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사회주의적 색채를 짙게 띤다. 즉, ‘노동의 논리’에 따른 협동화(협동노동)는 주체적인 제(諸)개인의 유기적 연대를 통한 노동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노동’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협동조합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 제약되면서도, ‘노동의 논리’를 부분적으로 관철시킴으로써 자본주의의 병폐를 완화·극복하고자 하며, 나아가 사회주의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 모든 성원의 복지와 전면적 발달’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의 본원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⁷⁾

<로치데일 공정선거자 조합>의 성공적인 경험은 소비협동조합운동이라는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와 양립 가능한 협동조합운동의 한 형태를 영국 협동조합운동의 주류 흐름으로 만들어 간다. 즉, 1863년에는 영국 소매협동조합연합회(CWS)가 결성되었고, 1871년에는 기관지인 <Co-operative News>가 발행되었으며, 1873년에는 <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소비협동조합운동은 국제적으로 그 영향을 확장하여 1895년 설립된 ICA 내에서도 주류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즉, 당시 가입자격을 정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원칙을 정할 필요성에 직면한 ICA는 <로치데일 공정선거자 조합>의 운영원칙을 근간으로 삼아 협동조합의 일반원칙을 만들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비협동조합에 해당하는 <로치데일 원칙>을 생산협동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결국 1937년 ICA 파리대회에서 ‘정치·종교적 중립’ 등이 포함 된 <협동조합의 7원칙>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는 <로치데일 원칙>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²⁸⁾ 즉, <협동조합의 7원칙>은 <로치데일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와 양립 가능한 협동조합의 표준적 원칙을 집약한 것으로, 1980년 <레이드로 보고서>에 의해 비판받을 때까지

27) 松原昭·影山摩子弥, “生活協同組合と社會主義”, 早稲田大学 産業經營研究所 『産業經營』 13, 2016, p.65.

28) 中川雄一郎(2018), p.41.

지 세계협동조합의 기본원리로 자리했다. 특히, 정치적·종교적 중립과 관련하여,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들의 협동조합운동에서는 노동자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정당의 참여와 지원이 있었지만, ICA는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원칙으로 명문화하면서까지 협동조합운동의 개량주의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운동과의 차별화를 도모하였다. 소비협동조합이 중심이 된 이러한 흐름은 1960년대 이후 복지, 의료, 교육 등 각종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는 협동조합이나 노동자 협동조합(Worker's coop)과 같은 생산협동조합이 대거 등장할 때까지 운동의 주류를 형성했다.

2.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운동과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창시자로 불리는 오언을 비롯한 초기사회주의자들을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이상적인 주장을 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로 명명할 바 있는 마르크스와 엥겔스(Friedrich Engels, 1820~1895)를 비롯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초기사회주의사상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이를 진정한 사회변혁운동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엥겔스가 자신을 ‘과학적 사회주의자’로 칭하며 이전의 유토피아 사회주의자와 애써 구별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진정한 사회주의운동은 자본주의에 대한 과학적 분석, 즉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논리적 분석과 비판을 토대로 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를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라는 계급대립과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간의 모순’으로 파악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혁명과 같은 계급지배 철폐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없는 초기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평가도 초기사회주의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였다. 즉, 19세기 중반 이후 사회주의운동을 주도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협동조합에 대해 한편으로는 장래의 사회주의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변혁을 지연시키는 개량주의의 온상이 되기 쉬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긍정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에서 사회주의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레닌은 마르크스의 이러한 생각을 발전시켜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장래의 사회주의 건설에 도움이 되는 실무를 학습할 수 있다고 보았다.²⁹⁾ 반면에 협동조합처럼 권력의 획득 없이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혁은 결국 자본주의의 연명에 이용당할 뿐이라는 비판도 폭넓게 존

29) 穴見博, “マルクス主義の協同組合觀”, 農林省農業綜合研究所『農業綜合研究』20-1, 1996, p.193.

재했다. 이러한 협동조합에 대한 양면적 평가는 사회주의운동의 시대적 부침(浮沈)이나 전략적 사고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1850~60년대 사회주의운동이 고양되었을 시기에는 범(凡)사회주의운동을 결집하려는 차원에서 협동조합이 가진 사회주의적 색채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1870년대 이후 사회주의운동이 침체에 접어들자 내부에 개량주의적 사고가 침투·확산할 것을 우려해 협동조합운동을 경계·비판하는 태도를 드러냈다.³⁰⁾

마르크스가 당대의 협동조합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는 하나 그것은 생산협동조합을 말하는 것이지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조합>과 같은 소비협동조합이 아니었다. 즉, 그는 생산과정의 외부에 존재하는 소비협동조합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정합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생산주체가 형성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협동노동이 이루어지는 생산협동조합에 주목하였다. 생산협동조합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은 하나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수가 협업하는, 이른바 ‘사회적 노동’의 형태를 띠며, 거기서는 자본가에 의한 감독노동이 없어져 노동과정에서의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 지양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르크스는 1864년의 <국제노동자협회 창립 선언>에서 협동조합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자주관리를 칭송한 바 있는데,³¹⁾ 이는 노동자계급이 고용자계급의 관리 없이 자주적으로 생산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임노동은 협동노동에 자리를 내주고 소멸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협동조합운동의 주된 흐름이 소비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형성되어가는 상황의 전개가 유사한 사상적 흐름 속에서 탄생한 사회주의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이 점차 괴리되어간 요인 가운데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마르크스는 협동조합운동이 가진 국지적 성격에 대해 비판한다. 즉, 협동조합의 외부에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및 시장경제가 존속하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운동이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통한 사적 노동과 사회적 노동의 대립 해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개별의 국지적 협동조합이 많이 생겨난다고 해서 저절로 ‘협동조합 사회주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협동조합조직의 확립이 요구되고, 이러한 조직을 확립하고 또 지켜가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장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르크스는 “협동조합이 개별 노동자의 우연한 노력의 좁은 범위에 갇혀 있는 한 그다지 무서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협동조합운동이 체제에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던 당시 지배계급의 태도를 폭로한 바 있다.³²⁾ 이처럼 마르크스

30) 위의 글, p.192.

31) 小松善雄, “マルクスの協同社會主義像”, 『經濟理論』 49-3, 2012, p.18.

32) 마르크스의 <제1인터내셔널 창립선언> p.13./穴見博(1996), p.189에서 재인용.

는, 이론적으로 협동조합이 국지적이고 영세한 성격을 탈피할 수 있다면 이에 의한 자본주의의 개조가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협동조합운동이 가진 국지적·개량적인 성격으로 인해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겼다. 즉, 노동자계급에 의한 권력 장악을 목표로 삼지 않는 현실의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분명히 하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당시의 협동조합운동이 전국적인 ‘협동조합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전망과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이 현실의 사회주의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이 괴리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레닌으로 이어지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과는 별도로, 사회주의운동 내부의 온건파(:수정주의자)나 독자적 흐름을 형성한 사회개량주의, 민중사회주의, 유로코뮤니즘 등 광의의 사회민주주의세력들은 협동조합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알다시피,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중심으로 1889년에 결성된 사회주의운동의 국제조직인 <제2인터내셔널>의 내부에서, 의회민주주의에 의한 평화혁명을 인정한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 1850~1932) 등 수정주의자와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고수한 카우츠키(Karl Kautsky, 1854~1938) 등 교조주의자 간의, 이른바 ‘수정주의 vs. 교조주의 논쟁’이 발생한 바 있다. 이 당시 수정주의자는 협동조합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베른슈타인은 1899년 발표한 글에서, 한편으로 협동조합에 대해 충분한 호의를 가지고 가능한 한 이를 촉진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는 노동자들에게 좋은 것이지만 사회민주당은 깊이 개입하고 싶지 않다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³³⁾

‘사적소유’, ‘사적이윤추구’, ‘자본의 논리’, ‘자유경쟁’, ‘노-자대립’ 등에 기반 한 자본주의가 낳은 병폐를 ‘공동소유’, ‘공익(共益)추구’, ‘노동의 논리’, ‘협동’, ‘노-자연대’ 등의 대항적 원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 초기사회주의 사상의 계보를 잇고 있는 협동조합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은 이론적·논리적으로는 상당한 접점을 갖고 있지만, 현실의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실천운동의 차원에서는, 이행전략과 지향점의 차이로 인해 점차 서로 괴리되어갔다. 특히,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운동이 러시아혁명을 통해 실존하는 사회주의체제로서 등장하게 되면서, 사회주의는 곧 실존하는 소련형 사회주의체제를 의미한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게 되었고, 협동조합은 사회주의와 멀어져 갔다.

33) 베른슈타인, “社會主義の前提と社會民主黨の任務”, 河出書房新社, 『世界大思想全集』 第15卷, 1960, p.183./穴見博(1996), p.192에서 재인용.

3. 협동조합과 사회주의의 유사점과 차이점

실존하는 사회주의체제를 곧 사회주의로 보는 실증적 사회주의 이해의 경향이 여전히 강하지만, 협동조합 또한 자본주의의 모순과 폐해가 낳은 산물로서, 자본주의 원리에 대항하는 사회적 가치와 원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사회주의사상을 잇는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협동조합과 사회주의는 여러 면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과학적 사회주의와 협동조합은 그 차이점 또한 적지 않다. 양자의 무엇보다 큰 차이는 현실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체제와 시장경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있다. 즉, 과학적 사회주의가 착취·소외당하는 프롤레타리아계급의 폭력혁명에 의한 자본주의체제의 전복만이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 반면, 협동조합운동은 자본주의체제가 존속되는 가운데 그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개선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의 변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협동조합운동은 자본주의 상품경제나 시장메커니즘을 부정하지 않고, 그 틀 내에서 자본주의적 기업 및 원리와 경쟁하면서 협동조합 및 원리의 필요성과 우위를 확산시켜 가고자 한다. 즉, 기업형태 가운데 하나로서의 협동조합에 주목할 경우,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기업의 전형적인 형태인 주식회사나 정부주도의 공기업과 함께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섹터 가운데 하나이며,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은 자본주의 생산양식 지배적인 것이 되기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시장경제가 곧 자본주의로 인식되게 된 것은 18세기 후반에 와서이다. 물론 자본주의가 시장경제를 전제로 삼아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시장경제에 자본주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³⁴⁾ 따라서 협동조합은 시장경제를 부정하지 않고 이와 양립하면서,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경제적 약자들을 도와 경쟁적 시장을 완성시켜 가고자 한다.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협동조합운동의 이러한 인식은 시장경제를 자본주의 병폐의 근원으로 보고 이의 철폐를 주장하던 과학적 사회주의와 거리를 두게 만들었다. 특히 내부적으로 다양한 이념적·종교적 계보의 운동들이 존재하던 협동조합운동은 명확한 정치·이념·당파적 성격을 띠던 당시의 사회주의 세력 및 정당이 내부에 침투할 것을 경계하여, 1937년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원칙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협동조합운동의 거

34) Stefano Zamagni·Vera Zamagni, *LA COOPERAZIONE*, 송성호 역,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북돋음, 2013, p.41.

리두기에 대해 사회주의운동 또한, 협동조합이 시장경제를 부정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작은 의미나 자리를 찾으려고 한다는 점을 들어, 협동조합운동은 사회변혁운동으로서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으로 대응했다.

협동조합은 지역적·일상적 삶에 토대를 둔 자생적 운동이기에, 스케일의 관점에서조차 전반적 사회변혁을 목적으로 삼는 사회주의운동과는 차이가 있다. 즉, 자본주의의 사적소유, 사적노동, 사적이익 및 경쟁 추구의 원리를 지양하는 방식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소유, 공동노동, 공동이익 및 협동의 원리 등을 통한 방식인 반면,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적 또는 국가소유, 사회적 노동, 전면적 계획경제의 추구 등을 통한 방식이다. 국가 또는 세계 스케일의 자본주의체제의 전복을 통한 사회주의·공산주의로의 이행을 목표로 삼는 마르크스주의가 프롤레타리아계급의 폭력혁명에 의한 국가권력 장악을 중요시한 것은 지배계급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이행에 결코 동의할 리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협동조합운동은 협동조합이라는 국지적인 공동체 내에서 자율, 민주, 협동의 원리를 실천해 나가는 운동이기에 굳이 혁명을 통한 사회체제의 전복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없었다. 현실의 삶이 고달프기는 하지만 폭력혁명에 따른 희생과 혼란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협동조합이 가진 ‘양면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협동조합운동에는 자본주의의 자본축적과정에서 착취·소외당한 경제적 약자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 협동하여 운영하는 일종의 기업을 만들어 대응한다는 측면과,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체제 내부에서 이에 상반되는 ‘노동의 논리’를 지향하는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어 사회운동을 전개한다는 측면, 즉 기업과 어소시에이션의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양면성으로 인해 협동조합운동은 때로는 광의의 사회주의운동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였다. 즉, 기업의 측면이 강조될 때는 사회주의적 성격이 열어지고, 어소시에이션의 측면이 강조될 때는 사회주의적 성격이 부각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두 가지 측면 가운데 어떤 것이 본질적인가는 쉽게 규정하기 힘들지만, 발생론적 관점에서 볼 때,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적 축적에 수반하는 모순에 의해 궁핍한 처지에 있던 경제적 약자들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어소시에이트(associate)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어소시에이션으로서의 측면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도로(美土路達雄)는 “협동조합은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에 대한 노동자의 해방운동의 일환으로서 결성된 것이며, 그 제1의 조직기반은 어소시에이션으로서의 그것이다.”라고 파악한다.³⁵⁾

35) 美土路達雄, 『協同組合論』, 東京: 筑波書房, 1994, p.99.

IV. 대안적 사회주의와 협동조합

1. 소련형 사회주의 모델의 실패와 대안적 사회주의의 모색

유물사관과 계급투쟁설로 무장한 과학적 사회주의자들은 유럽을 뒤흔든 1848년 혁명과 이어지는 1871년의 파리코뮌이라는 일시적인 사회주의정권 탄생을 겪으면서, 의회민주주의는 결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며, 따라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폭력혁명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연적이라는 인식을 강화해 갔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정작 이론의 주창자인 마르크스는 평화혁명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엥겔스 또한 폭력혁명이 시대에 뒤쳐진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등 서유럽 자본주의국가들에서 폭력혁명에 의한 자본주의체제의 전복 가능성은 회의적으로 여겨졌다.

이에 비해, 마르크스주의를 계승한 레닌에 의해 주창되고 스탈린에 의한 정식화된 이른바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마르크스주의를 기본으로 삼으면서도 종래의 과학적 사회주의자들과는 운동의 노선이 달랐다. 즉, 이들은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기반 하여, 직업혁명가에 의해 구성되는 ‘전위당’이 노동자계급을 지도하여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는 노선을 지향했다. 또한 성숙한 자본주의국가에서 그 내부적 모순에 의해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로 이행할 것이라고 주장한 과학적 사회주의와 달리, 레닌의 사망 후 <제3인터내셔널(1919)>에서 실권을 쥔 스탈린 등의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적 발전이 미성숙한 반제국주의적 후진국에서, 그것도 세계혁명이 아닌 일국(一國)만의 혁명이 가능하다는 전략을 취했다. 결국 이들 러시아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에 의해 1917년 10월의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함으로써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실존하는 사회체제로서의 이른바 ‘소련형 사회주의’가 성립하게 되었다.

소비에트 계획경제 모델로도 불리는 소련형 사회주의는 모든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중앙집중식의 철저한 ‘계획경제’를 그 중요한 특징으로 삼는다. 즉, 사적소유에 기반 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시스템’에서 국가적 소유에 기반 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시스템’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달성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소련형 사회주의는 계획경제로의 전환에만 그치지 않고, 계급투쟁으로서의 문화혁명 등을 통해 당·국가·사회단체가 일체화된 하나의 공적주체를 형성하여, 이를 통해 정치와 경제 및 사회전체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사회체제를 건설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소련형 사회주의는 ‘국가사회주의’로 불리기도 한다.³⁶⁾ 즉, 재산을 몰수당한 지주나 자본가계급 등의 저항으로부터 체제를 지켜간다는 명

36) 데이비드레논·溝端佐登史·林裕明·小西豊, 『国家社会主義の興亡: 体制轉換の政治経済学』, 東京: 明石書

분으로 수립한 국가중심의 강력한 통제시스템은 소련형 사회주의를 국가사회주의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이는 역사상 존재한 적도 생각한 적도 없던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였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는 리찌(Bruno Rizzi)가 말한 ‘관료집산주의(Bureaucratic collectivism)’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³⁷⁾ 당시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공업국과 비교해 자본주의의 발달이 뒤쳐졌던 러시아는 모든 기업을 국유화하여 국가주도에 의한 경제건설을 추진하였고, 그러다보니 관료계급이 막대한 권한을 장악하여 국가의 자원을 독점하고, 농민·노동자·상인·반체제세력 등을 착취하는 비민주적 관료독재의 형태를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좌파 이론가인 와다(和田春樹)가 소련형 사회주의를 “이른바 전체주의로 불리는 체제 이상으로 전적으로 일원화된 시스템이었다.”라고 평가하듯이,³⁸⁾ 이는 초기사회주의사상이 등장한 이후 그 계보를 잇던 사회주의사상들이 견지하고 있던 자율, 평등, 민주, 연대 등의 가치와 크게 괴리되며, 마르크스가 말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로서의 사회주의, 즉 ‘어소시에이션 사회주의’와도 배치되는 성격의 사회주의였다.

소련 등 실존 사회주의국가에서도 협동조합은 존재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회주의혁명이 성공하기 이전부터 협동조합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협동조합이 가진 사회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주의체제가 수립된 이후에도 협동조합은 계속 존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협동조합도 국가의 통제 하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협동조합조직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자율적 참여와 민주적 운영이 퇴색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협동조합운동을 주도하던 서유럽 중심의 협동조합운동은, ICA가 1937년에 정치적·종교적 중립성을 원칙 가운데 하나로 채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적 성격을 배제한 채 운동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입장이었기에 사회주의국가의 협동조합도 ICA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다만, 당시 서유럽은 소비협동조합이 주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고,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생산협동조합이 대부분이어서, ICA에의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했다.³⁹⁾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우 <로치데일 원칙>에서 유래하는 ‘잉여금의 이용과 배당 원칙’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유통에서의 중간이윤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협동조합의 경우, 상품가격에서 차지하는 중간이윤(유통비+상업이윤)의 비율이 극히 낮은 사회주의국가들에서는 거의 존재의미가 없었으며, 사회주의국가 협동조

店, 2007, p.504.

37) Bruno Rizzi, *The Bureaucratization of the World (La Bureaucratization de Mode, 1939)*, New York: Free Press, 1985, p.282.

38) 和田春樹, 『歴史としての社会主義』, 岩波新書, 1992, pp.100~102.

39) 全国農業協同組合中央会他編, 『協同組合原則とその解明』, 協同組合経営研究所, 1967, pp.106~107.

합의 입장에서는 ‘노동의 논리’가 적용되기 힘든 단순 구매자들에게 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및 동유럽의 실존 사회주의는 1936년 스탈린에 의해 사회주의사회의 성립이 선언된 이후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제2차 대전 이후 냉전체제의 대두와 함께 현존하는 자본주의체제와 이에 대항하는 사회주의체제라는 이념적 대결구도를 구축한 소련형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운동을 계보를 잇는 실존적 사회주의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갔다. 즉, 자본주의 대항하는 소비에트 계획경제 모델은 1920년대 자본주의가 대공황에 직면했을 때,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높은 생산력을 유지하며 국민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자본주의의 대항마로서의 자리를 차지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국가들과 대립하면서 군비경쟁을 비롯한 체제경쟁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전면적 계획경제의 불합리성과 국가사회주의를 주도하던 관료계급의 부조리 및 비효율성이 심화되었고, 결국 1991년에 소비에트연방은 붕괴하였다.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이후 사회주의국가들은 앞 다투어 시장경제의 요소들을 도입하였고, 이는 사회주의권 전체의 붕괴로 간주되어 ‘자본주의의 사회주의에 대한 승리’, ‘20세기 장대했던 사회주의실험의 실패’ 등의 수사가 유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련 및 동유럽의 사회주의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기조차 아니었다는 비판적 견해가 좌파 이론가들 사이에서 힘을 얻었으며,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적 사회주의가 모색되었다.

소련형 사회주의가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었다는 비판은 그것이 국가소유와 중앙집중식 계획경제에 기반 한 ‘국가사회주의’였다는 점과, 공산당 일당독재의 지속으로 인해 마르크스가 말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구현’이라는 사회주의의 궁극적 목적에서 멀어졌다는 점 등에 집중되었다. 즉, 소유형태에 있어서 국가소유를 달성하고, 자본주의의 사적이윤추구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철저한 계획경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진정한 사회주의란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활동이 보장되는 민주적 사회질서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토대로 좌파 이론가들에 의해 유력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어소시에이션니즘(associationism)’ 또는 ‘어소시에이션 사회주의’이다. 즉,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루소나 마르크스 등이 자율적인 공동체를 구성하는 방식이나 그 결과로 구성된 공동체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사용한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개념에서 그 대안적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안적 사회주의라는 관점에서 어소시에이션에 주목하는

자들은 주로 마르크스의 이론과 사상에 대한 재해석에서 그 논리적 근거를 찾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바타(田畑稔)는 어소시에이션을 “제 개인이 자유의지에 입각하여,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힘과 재산을 결합하는 형태로 사회를 만드는 행위 또는 그래서 만들어진 사회”라고 정의한 후, 이러한 어소시에이션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사회주의의 대안으로 인간의 주체성이나 자유를 되찾는 사회의 존재방식으로서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⁴⁰⁾

2.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제3의 길’과 어소시에이션

19세기말~20세기 초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비록 폭력혁명의 방식을 부정하고 의회민주주의의 틀 속에서의 변혁을 추구했지만,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 즉 자본주의의 폐지를 궁극적 목적으로 삼았다. 하지만 독일 사회민주당의 베른슈타인이 제안한 점진적 개혁노선에 기초하고 있는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소련 및 동유럽 공산주의자들과 이론 및 전략에 관한 치열한 논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폐지와는 점차 거리를 두게 되었다. 특히, 제2차 대전 이후 소련에 이어 동유럽, 중국 등지에서 사회주의국가들이 속출하고, 자본주의 vs. 사회주의라는 체제·이념적 대결구도가 전개되면서,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더 이상 자본주의의 폐지를 목표로 삼지 않고, 자본주의가 낳은 경제적 불평등의 시정, 즉 공공성을 앞세운 복지국가의 강화나 시장의 규제를 통한 경제적 평등의 제고 등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비록 소련 및 동유럽의 공산주의자와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과 지향이 크게 달랐지만, 서유럽 사회민주주의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실패했다는 생각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존하던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좌절만을 안겨준 것은 아니었다. 즉,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한편으로는 실존적 사회주의 실험의 실패로 인식되어 ‘대안의 부재’에 따른 혼동과 좌절을 안겨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vs. 사회주의라는 국가총력전의 대결구도를 종식시킴으로써 그동안 억눌려 있던 정치적 다원주의나 분권적 사고가 분출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초의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자본주의권 신보수주의 정권들의 공세에 따른 결과로 여겨져 1990년대 말까지 서유럽국가들에서 보

40) 田畑稔, 『マルクスとアソシエーション』、新泉社, 1994, p.4.

수정당이 득세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계속된 보수정당 지배에 대한 피로감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노선변경 등에 힘입어 1990년대 후반에는 서유럽 각국에서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힘을 얻었다. 유럽연합 가맹 15개국 가운데 12개국에서 사회민주주의정권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⁴¹⁾ 영국의 경우, 1997년의 총선거에서 블레어(Tony Blair)가 이끄는 노동당이 정권을 장악했다. 블레어 정권은 출범 즉시 분권화를 통한 권력의 지역적 위양과 함께 <제3의 길>을 새로운 사회변혁전략으로 내걸고, 그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추진했다.⁴²⁾ 블레어 정권이 내건 <제3의 길>은 신보수주의자는 물론 종래의 좌파, 즉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정책과도 차별화되는 것으로, 사회질서를 구성함에 있어 국가의 개입을 중시하는 ‘국가주의’와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는 ‘시장주의’의 어느 쪽도 아닌, 시민사회 내부에 있는 자율적 ‘어소시에이션’의 힘을 활용하지는 것이다.

어소시에이션에 주목하는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사회변혁전략은 협동조합운동에서 나타나는 1990년대 이후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 즉, 1980년대 들어 케인스주의 복지정책이 한계를 드러내며 국가에 의한 공적서비스가 위기를 맞이하자 협동조합운동에서도 어소시에이션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한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이 등장하게 된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바로 그것으로, 이는 이전의 협동조합들이 조합원 간의 상호부조 원칙을 매개로 공익(共益)을 추구했던 것과 달리 사회적 연대를 매개로 사회적 공익(公益)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⁴³⁾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운동은 ICA와 협력하면서 법제화를 추진하여 1991년에 법제화를 이루게 되며, 이를 계기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탈리아 국내는 물론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로 확산해가며 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였다.⁴⁴⁾ 이처럼 어소시에이션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확산과 함께 협동조합운동의 내부에서도 어소시에이션론으로 협동조합을 해석하려는 시도가 등장하고 있다. 즉, 허스트(Paul Hirst)는 “협동조합이 중추가 되어, 다양한 사회조직이나 비영리단체 등과 제휴·협력하여 활동의 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협동조합 대신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⁴⁵⁾ 협동조합이 어소시에이션에 가장 잘 부합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대안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NPO, NGO, 재단 등 다른 어소시에이션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이다.

41) 捧壁二, “國家とアソシエーション”, 田畑稔 外編, 『アソシエーション革命へ』, 社會評論社, 2003. p.67.

42) 中川雄一郎(2018), p.112.

43) 이상봉,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론적·실천적 의미”, 『로컬리티인문학』 16, 2016, p.272.

44) Stefano Zamagni·Vera Zamagni(2013), p.52.

45) Paul Hirst, *Associative Democracy*, London: Polity Press, 1994, p.20.

어소시에이션에서 대안적 가능성을 찾으려는 시도는 좌파 및 사회민주주의자나 협동조합운동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즉, 20세기 후반 국가의 비대화와 국가재정위기 등에 직면한 자본주의 우파진영 내부에서도 어소시에이션의 파도가 일고 있다. ‘국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연이어 겪은 자본주의국가들 내부에서 국가권력의 재편을 둘러싼 신자유주의 노선의 대안으로 국가(:공적영역)와 시장(:사적영역) 사이의 시민사회영역(:제3섹터)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어소시에이션에 대한 관심이 분출한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샐러몬(Lester Salamon)은 이러한 현상을, 19세기의 국민국가 대두에 버금가는 20세기 말의 혁명적 변화라는 의미에서 ‘글로벌한 어소시에이션 혁명’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⁴⁶⁾ 비영리섹터를 비롯한 다양한 어소시에이션의 분출이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포함한 사회질서를 영속적으로 바꿀지도 모른다는 의미에서이다.

V. 마치면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의 자본축적이 낳은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등장한 초기사회주의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개된 사회주의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은 ‘자본의 논리’에 대항하여 ‘노동의 논리’를 실현한다는 등의 사회주의적 지향을 공유하면서도, 현실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과 사회주의로의 이행 방법 등에서 그 차이를 드러내며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즉, 시장경제를 부정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본의 논리’에 대항해 온 협동조합운동은 폭력혁명에 의한 자본주의의 전복을 목표로 삼던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운동과 거리를 두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광의의 사회주의 원리를 실천해 왔다. 그 과정에서 협동조합운동은 사회·공산주의를 비롯한 정파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종교적 중립의 원칙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다양한 정치·이념적 스펙트럼의 협동조합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지만, 협동조합이 가진 사회주의적 색채는 옅어지게 되었다. 특히, ‘소련형 사회주의’라는 실존 사회주의체제가 등장하면서 협동조합을 사회주의사상의 계보를 잇는 흐름으로 보는 시각, 즉 협동조합의 사회주의적 성격은 크게 약화되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그 원리나 운영에 있어서 광의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계속 견지해 왔다.

그러다가 ‘소련형 사회주의’라는 실존 사회주의가 실패로 귀결된 이후, 이를 대신할 대안적 사회주의를 모색하는 좌파이론가들과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46) Lester Salamon, “The Rise of the Nonprofit Sector,” *Foreign Affairs*, vol. 74, No. 4, p.109.

성격의 강화를 모색하는 협동조합운동 간에 인식이 수렴되는 부분, 즉 양자 모두 어소시에이션의 대안적 가능성에 주목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좌파이론가들은 마르크스의 사상과 이론을 재검토하여 그가 말한 사회주의의 본원적 형태가 국가사회주의가 아닌 ‘어소시에이션’이었음을 논구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이론가들은 하나의 사회이데올로기로서의 협동조합주의를 대신하는 현대적 ‘어소시에이션론’의 수립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우파이론가들 사이에서도 기존 신자유주의노선의 결함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어소시에이션’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처럼 ‘어소시에이션’은 협동조합운동과 마찬가지로 좌파든 우파든 관계없이 모두 동의 가능한 일종의 탈 이념적 대안이다. 물론 특정 이념의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회운동은 주된 동력을 상실하기 쉽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 모두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회운동의 이념적 분절성을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경우 이러한 탈 이념적 성격은 매력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협동조합을 하나의 어소시에이션으로 보고자 하는 시각은 협동조합이 가진 사회성에 주목하는 흐름과 그 맥락이 닿아 있다. 즉,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 내포하고 있던 광의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잘 드러낸 것으로, 대안으로서의 어소시에이션에 부합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다중이해당사자형’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물론 고용자, 지역주민, 이사회, 유관단체, 자치체 등이 이해당사자로서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초기사회주의자들이 구상하던 커뮤니티와 유사한 형태인, 협동조합을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 즉 ‘협동조합 커뮤니티’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창진, 『사회주의와 협동조합운동』, 한울, 2008.
송성호 역,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북돋음, 2013.
이상봉,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론적·실천적 의미”, 『로컬리티인문학』 16, 2016.
정상은, “사회주의와 협동조합”, 『진보평론』 제59호, 2014.
J. S. 밀著·末永茂喜驛, 『經濟學原理』 東京: 岩波文庫, 1961.
デービットレーン·溝端佐登史·林裕明·小西豊, 『国家社会主義の興亡: 体制轉換の政治経済学』, 東京: 明石書店, 2007.
ベルンシュタイン, “社會主義の前提と社會民主黨の任務”, 河出書房新社, 『世界大思想全集』 第15卷, 1960.
高橋五郎·磯辺俊彦, “サン・シモン, フーリエの思想にみる生産協同組合論”, 『千葉大園学報』 43, 1990, pp.

91~104.

- 美土路達雄, 『協同組合論』, 東京: 筑波書房, 1994.
- 飯島源次郎, “社会主義と協同組合”, 北海道大学 『農經論叢』 30, 1974, pp.121~141.
- 北出俊昭, 『協同組合と社會改革』, 筑波書房, 2012.
- 小槻直史, “J. S.ミルの協同組合觀に関する一考察”, 『生駒經濟論叢』 8-3, 2011, pp.15~29.
- 小松善雄, “マルクスの協同社會主義像”, 『經濟理論』 49-3, 2012, pp.14~26.
- 松原昭・影山摩子弥, “生活協同組合と社會主義”, 早稲田大学 産業經營研究所 『産業經營』 13, 2016,
- 安田均, “マルクスのアソシエーション論とその制約”, 法政大學 『經濟志林』 89-2, 2022, pp.521-553.
- 安井俊一, “J. S.ミルの社會主義論とマルクス”, 慶應義塾經濟學會, 『三田學會雜誌』 112-1, 2019, pp.3~14.
- 野口敏夫, “ルソーのアソシエーション論とマルクスのアソシエーション論”, 北海学園大学 大学院經濟学研究科 『研究年報』 17, 2017, pp.13~33.
- 田畑稔 外, 『アソシエーション革命へ』, 社會評論社, 2003.
- 中川雄一郎, 『協同組合のコモン・センス』, 日本經濟評論社, 2018.
- 中川雄一郎, 『キリスト教社會主義と協同組合: E. V. ニルの協同居住福祉論』, 日本經濟評論社, 2002.
- 中川雄一郎・杉本貴志, 『協同組合, 未來への選擇』, 日本經濟評論社, 2014.
- 川野重任編, 『協同組合事典』, 家の光協會, 1966.
- 穴見博, “マルクス主義の協同組合觀”, 農林省農業綜合研究所 『農業綜合研究』 20-1, 1996, pp.187~197.
- 和田春樹, 『歴史としての社会主義』, 岩波新書, 1992.
- Cole, George Douglas Howard, *A Century of Co-operation*, Allen & Unwin for the Co-operative Union, 1944.
- Griffiths, David A. “Pierre Leroux Redivivus”. *Nineteenth-Century French Studies*.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2 (1-2), 1983, 105-115.
- Owen, Robert. *Report to the Country of Lanark: A New View of Society and Other Writings*, Everyman's Library, 1949.
- Rizzi, Bruno. *The Bureaucratization of the World (La Bureaucratization de Mode, 1939)*, New York: Free Press, 1985.
- Rousseau, Jean-Jacques, *The Social Contract and Discourses*. Translated with an Introduction by G. D. H. Cole, London and Toronto: J. M. Dent and Sons, 1923.
- Salamon, Lester, “The Rise of the Nonprofit Sector,” *Foreign Affairs*, vol. 74, No. 4, pp.109~122.
- Zamagni, Stefano・Zamagni, Vera, *La Cooperazione*, Il Mulino, 2008.

【 Abstract 】

Cooperatives and Socialism

Lee, Sang-Bong

Cooperative thought or movement appeared in the tide of socialist thought, but it was not recognized as a stream of socialist movement led by Marxists. However, since the 1990s, on the one hand, with the collapse of ‘State Socialism’ in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the original form of socialism was reconsidered, and on the other hand, new cooperatives with strong socialist characteristics, such as ‘Social Cooperative’, are erupting, the need for interest in and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operatives and socialism is increasing. Based on this situation, this article analyzed various issues that can be raised in rela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ooperatives and socialism, namely, are cooperatives a stream of socialist ideology and movement? How did early socialists perceive cooperatives? How did the cooperative and socialist movements perceive each other? What 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ooperatives and socialism?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cooperatives and associationism which is raised as alternative socialism?

Key Words : Cooperative, Socialism, Association, Alternative Socialism, Social Cooperative